

ISSUE ANALYSIS
(2026.3.4.)

**북한 노동당
제9차 대회 평가**
(2026.2.19~2.25.)

박상신

www.kpiri.co.kr

ISSUE ANALYSIS

북한 노동당 제9차 대회 (2026.2.19. ~ 2.25.)

김정은 개막연설(2.19.) 및 폐회사(2.25.)

- 당대회 집행부 39명 중, 23명 교체
 - 원로그룹에 해당하는 김영철, 박봉주, 오수용, 최휘 등 제외
 - 내각총리 박태성, 외무상 최선희, 국방상 노광철,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 주창일 당 선전선동부장, 한광상 당 경공업부장 등 현재 당·정·군의 핵심 간부들이 합류
- 개막연설
 - "대외적으로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졌다"면서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적 지위를 확보했다고 자평
 - "정치와 경제, 국방, 문화, 외교를 비롯한 모든 방면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했다"고 강조
- 폐회사
 - 2026년은 '전면적 발전기'로서 향후 5년의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 중요한 첫해
 - 새로 선출된 당 중앙 지도기관 성원들에게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적인 태도'를 요구
 - 각 부문별 당 조직이 5개년 계획을 연차별, 세부적으로 세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동원하는 '정치적 지도'를 신화할 것을 당 조직의 역할로 주문
- 폐막 열병식
 - 2.25. 야간 15,000명 병력을 투입해 폐막 열병식 거행
 - "우리 무력은 모든 상황에 준비돼 있다"
 - "어떤 세력의 군사적 적대행위에 대해서도 즉시에 처절한 보복 공격을 가할 것"

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회의(2.20.)

- 핵심 내용
 - "지난 5년간은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 있어서 심원한 의미를 가지는 대변혁, 대전환의 연대기"였음
 -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제8기 당중앙위원회의 영도 밑에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외교 등 당과 국가사업 전반에서 이룩된 괄목할 성과"를 이루었음
 - "큰 변혁과 성공을 담보하는 비약의 도약대"가 되었음
 - 노동당 8기에서 "제일 중대하고 전략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은 공화국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되돌릴 수 없게 영구적으로 다진 것"이라고 평가
 - "앞으로도 핵 보유국 지위를 영구히 명문화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수호에 언제나 충실할 것"임을 강조

김정은 국무위원장 노동당 총비서에 재추대(2.22.)

- 재추대 결정서 만장일치 채택
 - "어떤 형태의 전쟁 에도 만반으로 준비된 혁명적 무장력을 건설했다"
 -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전쟁 억제력이 비약적으로 제고됐다"라고 자평
 - "핵을 대부로 개선된 경제생활환경을 추구하지 않을 것," "천신만고한대도 자기의 선택을 바꾸지 않겠다"라며 핵을 경제적 대가와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2.23.)

- 노동당 및 국가 주요 고위직의 세대교체 속도 가속화
-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장관급)으로 승진 및 정치국 후보위원 복귀
- 노동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138명, 후보위원 111명 선출
 - 대폭 세대교체로 절반 이상을 김정은 세대가 차지함
 - 중앙위원 138명 중, 73명 교체(후보위원에서 중앙위원으로 승격 19명, 곧바로 중앙위원에 진입 51명)
 - 후보위원 111명 중, 85명 교체(중앙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 3명, 새로 후보위원에 진입 85명)
-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및 후보위원, 중앙군사위원회 및 중앙검사위원회 선출
 - 정치국 상무위원(5명)
김정은 총비서, 박태성 내각 총리,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재룡 조직지도부장, 리일환 선전선동부장
 - 정치국 위원(19명)
김정은, 박태성, 조용원, 김재룡, 리일환, 정경택, 김성남, 신영일, 리히용, 주창일, 조춘룡, 안금철, 김정관, 김승두, 최선희, 노광철, 김성기, 김덕훈, 박정근
 - 정치국 후보위원(11명)
김여정, 박광웅, 한광상, 주철규, 전현철, 박훈, 리철만, 리영길, 리창대, 방두섭, 김철원
 - 중앙군사위원회(11명)
김정은(위원장), 정경택(부위원장), 조춘룡, 노광철, 김성기, 리영길, 방두섭, 최춘길, 김정식, 유광우, 리창호
- 노동당 규약 개정
 - 새시대 5대 당 건설 노선(2022년 제시)을 '항구적인 당 건설 노선'으로 명문화
- 김정은의 독자적 위상 강화를 위한 대내외용 메시지 발신에 집중
 - "3대(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 "특히 일군들과 근로자 들을 혁명화, 노동 계급화하기 위한 사상혁명을 심화시키는 것이 절박한 과제"

- 당 대회 연설자들이 '김정은 배지(초상휘장)'를 착용
- 7·8차 당 대회와 달리 개회사 서두에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표하지 않음
- 미국에 대해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가 있다면 관계 개선 여지가 있다"고 언급
- 한국에 대해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으로 다루어 나갈 것"이라고 언급

당 건설 핵심 추진사항

○ 경제 부문

- 수도 중심에서 지방과 농촌으로 발전 확대 '지방발전 20x10 정책' 고도화
단순한 공장 건설을 넘어 병원, 종합봉사소, 과학·문화시설까지 동시 건립
- 5개년 경제계획(2026~2030년)
안정 공고화 및 질적 발전
무리한 확장보다 이전 5년 동안 다져 놓은 토대 위에서 생산의 질을 높이고 성장 추이를 유지
금속, 화학, 전력, 석탄 등 기간공업의 주도적 지위 유지
내각 중심의 경제 관리 질서를 강조
- 식량 자급을 향상
알곡 생산구조 개편, 밀 농사 확대와 가공능력 확장, 간석지 개간
- 인민생활 향상
육아 및 보육을 위해 비상방역 시기에도 유지했던 유제품 공급

○ 국방 부문

-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 계획(2026~2030년)
- 위력이 강화된 지상 및 수중발사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배치
- AI 무인 공격 종합체인 인공지능이 탑재된 공격용 드론 및 무인기 개발
- 우주 및 전자전을 위해 적국의 위성을 무력화하는 특수자산과 지휘부를 마비시키는 강력한 전자전 무기 도입
- 600mm 초대형 방사포와 신형 240mm 방사포, 작전·전술 미사일의 연차별 증강 배치를 통해 집중타격 능력 극대화
- '핵 방아쇠'라 불리는 통합 핵 위기 대응체계의 가동 시험과 훈련 정례화
임의의 시각에 즉각 핵반응이 가능하도록 실전화 수준

○ 대남 및 대외 부문

-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으로 규정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한다고 명시
남부 국경선 요새화, 물리적 단절을 영구화하기 위해 국경지역을 요새로 만들고 모든 연결 통로를 차단하는 법적·행정적 조치
유사시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력한 물리적 대응 가능성 시사

- “비현실적인 것으로 증명된 한국과의 대화와 협력, 명분에 추호도 집착하지 않을 것”
- “한국의 현 집권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
- “핵보유국의 문전에서 실행되는 한국의 부잡스러운 행동이 우리의 안전환경을 다쳐놓는 행위”
- 미국의 대결 자세가 변하지 않는 한 ‘최강경 자세’를 유지할 것
- 평화적 공존이든 대결이든 모든 상황에 준비되어 있다고 언급
-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 없어”
- “북미 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 다극화 전략
- 중국·러시아 등 주변 강국과의 친선 강화
- ‘반제자주’ 세력과 연대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전략 강조

향후 5년 전망

- 경제력 향상을 위해 식량난 해결과 지방발전 20x10 정책 확대 및 지속 추진
- 김정은 체제 공고화 및 정책적 성과를 위해 당 및 정부의 요직에 세대교체 진행
 - 김여정 역할 확대 및 4대 세습 여건 조성
- 핵무력과 상용무력(지상군, 해군, 공군)의 병행 개발 및 발전
 - 낙후된 재래식 무기체계 향상을 통한 대남 군사력 우위 추구
- 북한 체제 유지와 4대 세습의 일환으로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을 지속
 - 이재명 정부의 남북한 평화공존과 공동성장 정책과 선제적 조치에 미온적으로 대응
- 대외정책 방향
 - 중국과 경제 및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관계 유지
 - 러시아와 러-우 전쟁지역 복구를 위해 병력 지원과 노동력 파견 등 포괄적 동반자 관계 지속
 - 미국과 핵 보유를 인정받는 조건으로 ICBM 개발 중지 등을 제시하면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
 - 북한이 다극체제의 일원으로 북·중·러와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북한과 정권의 위상 강화를 추구